



주간통일정세 2008-15(2008.04.07~04.1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승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1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잇단 군부대 시찰(4/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337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김 위원장은 또 부대 군인들과 주둔지역 주민들 사이에 맺어진 유대관계에 대해 보고받고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우리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참모습”이라며 “군대는 원민(援民)을 하고 인민은 원군(援軍)을 하면서 군민이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 연합부대 시찰에는 김격식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현철해, 김명국 대장 등이 수행
- 앞서 김 위원장은 인민군 제109부대 산하 포병중대를 시찰, 군인들에게 “군사복무의 순간순간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 모두가 조국보위 성전에서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중대 군인들의 예술 공연 관람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김정일, 군부대 중대 역할 강화 강조(4/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493군부대 직속중대를 시찰하고 군대에서 중대의 역할을 높일 것을 강조
-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5일과 6일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350군부대 산하 중대에 이어 제776군부대 산하 신입병사훈련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

나. 정치 관련

● 최고인민상임위원회, 82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4/13, 조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8일 정령을 통해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 관리소와 전천음료가공공장에 ‘3중 3대혁명붉은기’를, 순안구역 안흥농장 제1작업반을 비롯한 16개 단위에 ‘2중 3대혁명붉은기’를, 평천부재공장을 비롯한 82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를 각각 수여

● 새 세대 혁명전통 교양 강화강조(4/12,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물려준 혁명의 총대를 역세계 틀어 잡고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한다”며 새 세대를 대상



으로 한 ‘혁명전통 교양’ 강화를 강조

- 신문은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기둥이다’ 제목의 편집국 논설을 통해 “조국과 혁명의 전도는 새 세대들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이어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현대적 과학기술에 의거해 생산공정의 기술개선(개선)을 다그치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더 높이 비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비핵개방3000은 상호주의의 재판(4/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라는 시골장사치의 유치한 사고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 “북남관계 발전과 통일운동을 가로막기 위해 들고나왔던 ‘상호주의’의 재판”이라고 비판
- 신문은 “북과 남이 서로 화해, 협력해 북남관계 역사상 처음 보는 새로운 국면을 열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된 것이 그렇게도 달갑지 않은가”,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빈 종잇장처럼 여겨지는가”라고 반문

● 南의 인권공세는 남북대결 추구(4/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공세를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가고 외세와 야합해 우리를 어찌보자는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친미주구의 가소로운 망동’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이명박 패당이 집권하자마자 미국 상전의 인권 나팔에 적극 합세해 나서고 있다”며 “인권 타령은 우리 체제와 제도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이고 동족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을 고취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 신문은 “이명박 일당이 인권 소동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고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가며 외세와 야합해 우리를 어찌보자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남관계의 발전도, 자주통일운동의 전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

● 北총리, 존엄침해 사소한 행위도 징벌(4/8,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김영일 내각 총리는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북한) 적대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우리의 자주적 존엄과 이익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 김 총리는 8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강경보수 세력들은 대화의 막 뒤에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현대적 군사장비들을 연이어 증강 배치하고 남조선 호전세력과 야합해 대규모적인 북침 합동 군사 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

● 유엔 대북 인권결의는 내정간섭(4/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3월 27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내정간섭”이자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행위”라고 비난, 그러나 이번 보도에서 한국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은 거론하지 않음.

● 北, 사태 해결 여부 남측 당국에 달려있다고 주장(4/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8일 남측에 대해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선제타격’ 폭언을 취소하고 사죄하며 세상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반도에 “조성된 사태가 해결되는가 아니면 더 악화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북핵기지 선제타격 폭언이 현 집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주장

● 노동신문, 北개방론은 南의 흡수 기도(4/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개방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흡수통일’ 기도라고 반발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에 대한 용납못할 모독이고 도발이며 반통일 대결 책동”이라고 주장

● 北, 유엔대사에 신선호 임명(4/7, 조선중앙통신)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임 대사에 신선호 전 차석대사를 임명했다고 보도

다. 경제 관련

● 서해평야지대에도 감자 확대 재배(4/12, 조선신보)

- 량강도와 자강도 등 산악지대에서 주로 심던 감자를 쌀 생산지인 서해의 평야지대에서도 확대 재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그동안 벼농사가 기본인 서해안 일대에서는 감자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최근 “감자를 더 많이 심을데 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다”며 이를 위해 2003년부터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협동농장에 감자생산을 일반화하기 위한 시험재배포전이 “내외의 협력밑에” 조성됐다고 언급
- 조선신보에 따르면 쌀농사가 기본인 서해안 지역에서 벼를 거둬들이



뒤 감자를 심어서 원활하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기후 조건에 맞고 2모작에 적합한 우량 종자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도

● 5년간 국제특허 출원 14건(4/11, WIPO 홈페이지)

- 북한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4건의 국제특허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한 것으로 집계, 11일 WIPO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2003년 3건, 2004년 3건, 2005년 2건, 2006년 4건에 이어 2007년 2건의 특허를 신청

● 2008년 예산 전년대비 2.5% 증가(4/9, 연합뉴스)

-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6차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지출액을 작년에 비해 2.5% 증액했으며, 내각은 2012년까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 로두철 내각 부총리는 예산보고에서 “올해 국가 예산지출 계획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으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결정적으로 치켜세우고 인민생활 향상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해 102.5%로 늘리게 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북한의 올해 예산은 4천515억원(미화 32억달러) 규모로, 국방비는 15.8%로 713억원(5억1천만달러) 규모로 추정
- 북한은 또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 대한 지출을 2007년보다 49.8% 증액키로 결정해, 앞으로 기간산업에 투자를 집중할 것임을 시사, 대신 작년에 무려 60.3%나 예산을 늘렸던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지출 계획은 올해 6.1% 증가에 그쳤고, 농업부문 투자증액비도 작년 8.5%에서 올해는 5.5%로 줄어들.
- 김영일 내각 총리는 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우리는 2012년까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수행에 들어가게 된다”며 “우리는 이 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우리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발전된 수준에 올려세울 것”이라고 강조
- 최고인민회의의 강능수 문화상 겸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부의장에서 해임함. 이날 회의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호 당 중앙위 비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등이 참석

● 北, 경제부문 1분기 계획 달성(4/8, 조선중앙방송)

- 북한 전역의 각 경제 부문에서 1/4분기 계획을 달성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방송은 1~3월 전력, 석탄, 철강, 시멘트, 통나무 등 주



요 경제지표의 생산이 늘어나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공업 총생산이 크게 성장했다며 전력공업성은 105%, 석탄공업성에서는 112%로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보도

- 방송은 또 채취공업성 산하 생산단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배의 생산량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편직공업관리국 116%, 비단공업관리국 111% 등 경공업성에서도 1.4분기 계획을 완료했다고 밝힘.

라. 군사 관련

● 北전투기 MDL 10km까지 근접 비행(4/11, 연합)

- 북한 전투기 2대가 4월 8일 세 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MDL) 10km까지 근접 비행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11일 “북한 전투기 2대가 지난 8일 오전에만 세 차례나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10km나 이남으로 비행한 뒤 되돌아갔다”면서 “이번 처럼 MDL에 근접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힘.
- 전술조치선은 북한 전투기가 이륙 후 불과 3~5분 내에 수도권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MDL과 북방한계선(NLL)의 20~5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으로, 북한 전투기가 이 선에 근접하면 우리 전투기가 즉시 발진하도록 되어있음. 북한 전투기들은 올 들어 4월 8일까지 15차례나 전술조치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짐.

마. 사회·문화 관련

● 대동문영화관 개축 준공식(4/13, 조선중앙통신)

- 평양시 중구역의 대동문영화관이 개축 공사를 마치고 13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준공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총리,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중린,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강능수 문화상 등이 참석

● 김정일 생일기념(2/16) 제2차 전국 소묘축전 폐막(4/10, 조선중앙TV)

● 北옥류관, 새단장하고 15일부터 영업 재개(4/12,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점인 ‘옥류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에 영업을 재개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옥류관은 2006년 본관을 개보수했으며 2008년 9월부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별관인 1관과 2관, 모란각 등에 대한 전면 개보수작업을 진행

● ITF 아시아태권도대회 종합우승(4/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총재 장웅)이 주관하는 제4차 아시



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선수단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17개국,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4월 2~6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북한 선수단은 금메달 2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

● **김일성 생일(4/14)기념 제10차 ‘김일성화’ 축전 개막(4/11, 조선중앙TV)**

-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맞아 11일 제10차 김일성화 축전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강능수 문화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인도네시아 정부문화대표단과 북한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북한 주재 외교단, 경제·무역 참사단 등이 초대됨.

● **김일성 생일 예술축전 개막(4/10, 조선중앙방송)**

- 고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기념한 ‘제1차 전국예술축전’이 10일부터 18일까지 평양 시내 극장·회관에서 열린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북한은 이번 행사를 김 주석의 대표적 생일행사인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격년으로 번갈아 개최할 계획
- 방송에 따르면 예술공연은 평양시내 12개 극장, 회관에서 진행되며 김 주석 생일과 그 이튿날인 15~16일 인민문화궁전과 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평양역, 평양체육관 앞마당, 만경대 유희장 등에서 여러 단체들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
- 축전조직위 관계자는 “축전 폐막식은 전문예술 부문의 경우 청년중앙회관에서, 군중예술 부문은 인민문화궁전에서 동시에 열린다”며 “종합공연 형식으로 폐막공연을 진행하고 해당한 시상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대외봉사학원생 음식솜씨 경연(4/10, 조선신보)**

- 호텔 등에서 근무하게 될 요리사와 접대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인 평양 대외봉사학원 학생들이 졸업 음식품평회에서 음식 솜씨 경연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아동영화 각색 인형극, 인기몰이(4/10, 조선신보)**

- 평양인형극단이 1970년대 이후 방영됐던 아동영화를 각색한 인형극이 최근 평양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1961년 창단된 평양인형극단은 모란봉구역에 전용극장인 평양인형극장을 갖고 있으며 해마다 5~6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음.

● **백두산 봄기운 완연, 눈사태 장관(4/10, 조선중앙통신)**

-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도 봄이 찾아와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내



리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백두산지구 연평균 기온은 장군봉이 영하 7.5℃, 혜산 2.7℃, 백암 0.3℃, 대흥단 1.0℃ 등이며 겨울이 길어 8월 상순부터 첫서리가 내리기 시작해 이듬해 7월 상순까지 찬 날씨가 계속됨.

- **쌀 1kg에 2천원…식량가격 급상승(제119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전역에서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일부 지역의 kg당 쌀 값이 2천원을 넘어섰고, 옥수수 값도 1천원에 이르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 단체인 좋은벗들이 10일 보도, 이 단체는 평안남도 남포에서 지난달 말 쌀 1kg이 2천50원에 거래돼 북한 최초로 2천원을 돌파했다고 전인, 평양에서도 kg당 쌀 값이 지난 2월 1천400원대에서 지난달 초순 1천600원, 하순 1천800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평안남도 평성과 황해남도 사리원, 함흥과 강원도 원산에서도 1천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소식지는 보도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주년을 기념한 여성동맹원 경축모임 개최(4/8, 조선중앙방송)**
 - 주체사상탑 광장에서 김중린 당중앙위 비서와 로성실 여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앞서 전국 직업동맹 웅변모임이 4월 7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농업 근로자 경축모임이 7일 평북 정주시 신천농장에서 각각 개최
- **개성 등 기상관측이래 당일 최고기온(4/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8일 “낮 최고기온이 평성 23.4도, 사리원 23.5도, 개성 22.5도로 당일 최고기온으로는 기상관측이래 가장 높았다”고 보도
- **北떡집, 주문판매 활용 소비자취향 파악(4/8, 조선신보)**
 - 북한의 민속요리 전문점이 주문판매를 활용해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요리정보를 얻어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떡상품을 출시
- **만경대상 마라톤대회 IAAF 공인(4/8, 조선신보)**
 -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북한의 ‘만경대상’ 마라톤대회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공인을 받음.
- **평양서 ‘세계 보건의 날’ 행사(4/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세계 보건의 날’인 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후변화로 부터 건강을 보호하자’라는 주제로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행사에서는 리봉훈 보건성 부장과 세계보건기구(WHO) 평양대표부



의 테즈 알리아 소장이 연설했으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후 변화와 황사로부터의 건강보호 등에 관한 토론토 진행했다고 통신은 보도

● **북한, 바코드법 제정(3/24; 3/18; 3/26, 민주조선)**

- 북한도 상품유통의 정보화와 '사회주의 상업' 발전을 목적으로 4개장 39개조로 구성된 '상품식별부호(바코드)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조선 최근호(3.14, 18, 26)는 '법규해설'란을 통해 3차례로 나눠 상품식별부호법 내용을 상세히 소개

● **민주조선, 봄철 옷차림·머리 단장 권장(3/28, 민주조선)**

- 민주조선 최근호(3.28)는 '봄철 옷차림과 몸단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든 일꾼과 근로자들은 봄 계절에 맞게 산뜻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도록 해야 한다"며 권장하는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등을 소개하고 특히 남성들에게도 옷차림과 머리를 단정히 할 것을 요구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駐러 北대사, 곧 중국에 핵 불능화 신고 제출(4/11, 연합)**

-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10일 "평양 당국이 곧 중국 정부에 핵 불능화와 관련한 책무를 이행했음을 신고할 것이고 중국은 차기 6자회담 조건에 대한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김 대사는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95주년을 맞아 대사관에서 가진 행사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핵심 이슈는 "미국이 그들의 책무를 얼마나 충족하느냐 여부"라고 강조
- 그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양자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농축하고 핵 분야에서 시리아와 협력했다는 미국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들을 해결했다고 주장

● **6자회담 월내 개최 조정 중(4/11, 연합)**

- 북핵 6자회담을 4월 내 재개하는 방향으로 관련국 사이에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11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핵폐기 '제2단계'의 핵심인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해서는 재개에 앞서 북한측이 14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정부에 신고 리스트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보도



나. 북·미 관계

● 北, 유엔군축위서 美에 ‘적대정책 포기’ 촉구(4/13, 조선중앙방송)

- 북한 대표는 4월 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군축위원회 연례회의에서 “내외 반공화국(반북), 반통일 세력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한반도에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남한에 대해서는 ‘10.4선언’ 이행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북한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북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후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바라다면 남조선(남한)과의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적대행위로 핵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공약한대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실천행동으로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 또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에 추종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요구대로 올바르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조선신보, 싱가포르에서는 3단계조치도 논의했을 것(4/11, 조선신보)

- 북한과 미국은 4월 8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핵 10·3합의의 이행이 완결 다음의 ‘제3단계 조치’도 논의했을 것이며, ‘3단계’에선 “조선(북한)의 핵포기 대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라는 동시행동이 보다 심화되고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선신보가 11일 주장
- 신문은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이 “미국을 앞질러 싱가포르 합의를 공표한 것은 10·3합의 이행의 완결과 ‘제3단계’의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 그러나 신문은 “더우기 우려되는 것”으로 “조선에 대한 대결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본과 남한을 들고 “동족대결을 일삼하는 남조선의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는 싱가포르 합의가 초래하는 변화의 흐름과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
- 신문은 “싱가포르에서는 부시 정권이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지고, 미국측은 대통령의 임기내에 비핵화 과정을 계속 진척시킬 수 있는 명분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해석

● 北, 핵신고와 美의 정치적보상 합의(4/9, 북한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힐(Hill)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 간의 회담을 소개하면서 “10·3 합의 이행을 완결하는 데서 미국의 정치적 보상 조치와 핵 신고 문제에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밝히고 “이번 싱가포르 합의는 조·미 회담의 효과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덧붙임.
- 하지만 힐 차관보는 9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세부적인 계획(logistics)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미국



으로 돌아가 라이스(Rice)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의회 청문회도 거쳐야 한다”고 언급

다. 북·중 관계

● 北, 中에 옥수수 수출쿼터 15만t 할당 요청(4/13,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북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정부가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식량수출 제한정책을 실시하자 옥수수 15만t에 대한 수출쿼터 할당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힘.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북한에 일단 옥수수 5만t의 수출쿼터를 할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2월 중국의 옥수수 대북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수출쿼터 할당에 따른 수출이 이미 개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실제로 중국의 한 식량무역정보 웹사이트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중국의 식량수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2월에만 2만7천 600t의 옥수수를 중국에서 수입,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입량이 무려 1천523.5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주중 北대사관, 김일성 생일 연회(4/12, 조선중앙방송)

-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은 11일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맞아 중국의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연회에는 중국의 정책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아부라티 아부두리시티 부주석, 중국 대외연락부 류홍차이(劉洪才) 부부장,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 고위 인사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상무부, 인민일보사, 신화통신사 등의 간부들이 초대됨.

● 北,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적극 지지(4/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일부 국가의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저지 움직임을 “올림픽 이념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4월 28일 평양을 통과하는 성화 릴레이는 “가장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꽃파는 처녀’, 中 12개 도시서 40회 공연(4/11, 연합뉴스)

- 북한의 대표적 혁명가극인 ‘꽃파는 처녀’가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12개 도시에서 40회 막을 올리는 것으로 일정이 확정, ‘꽃파는 처녀’는 4월 15일부터 베이징을 시작으로 톈진(天津), 선전(深천<土+川>), 우한(武漢), 둥완(東莞), 상하이, 닝보(寧波), 항저우(杭州), 우시(無錫), 난징(南京), 지난(濟南), 칭다오(靑島) 등 12개 도시에서 개최, 그러나 순회공연 일정에 동북지방은 포함되지 않음.



- 북한은 이번 순회 공연을 위해 피바다가극단 소속 공훈배우와 인민예술가 등 총 180명으로 구성된 최정예 공연단을 중국에 파견할 예정

라. 북·일 관계

● 김정일, 조총련에 2억엔 장학금 전달(4/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에 즈음해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일본돈으로 2억500만 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조총련에 보낸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154회에 걸쳐 462억1천122만3천 엔에 달한다고 보도

● 조총련, 日 대북제재 연장 결정 철회 촉구(4/11,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11일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연장 결정에 대해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해결에 “백해무익”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총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통해 “6자회담의 10·3합의 이행을 완결하는 데서 관건적인 고리로 되는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의 일치가 이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마치도 합의가 없었던 듯이 고아대면서 제재 연장을 결정한 것은 황당무계한 폭거”라고 비난
- 또 일본정부가 대북제재의 미명하에 조총련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식민지통치의 희생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을 보호해야 할 도의적 책임을 포기하고 적대시와 배타, 정치탄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결코 용납 못할 악랄한 범죄적 행위”라고 규탄
- * 일본 정부는 11일 각의를 통해 4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제재조치는 북한의 화객선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의 모든 물품 수입금지, 24개 사치품 수출금지가 핵심으로,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한 뒤 반년마다 연장해왔으며 이번이 3번째임.

마. 북·러 관계

● 러시아 국제자선기금 ‘세기의 예술의 보호자들’ 대표단 환영연회 개최(4/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방북 중인 러시아 국제자선기금 ‘세기의 예술의 보호자들’ 대표단을 위해 12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연회에는 러시아 자선기금 대표단



관계자,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등 러시아 측 인사와 북-러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관계부문 간부들이 참석

● **러 철도주식회사대표단 방북(4/8, 조선중앙통신)**

- 아나톨리 월로진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이 8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바. 기타외교 관계

● **북한 주재 쿠바 대사 김일성 생일축하 및 김정일국방위원장 추대기념 연회 개최(4/12, 조선중앙방송)**

- 김 주석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돌에 즈음해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파노 북한 주재 쿠바 대사가 11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연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룡남 무역상, 김용진 교육상, 리용철 김일성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등이 초대

● **北최태복, 남아공 IPU 총회 참석(4/10, 조선중앙방송)**

-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4월 14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제11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10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김책공대, 세계컴퓨터경시대회 불참(4/10, 연합)**

- 캐나다에서 열린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해 주목받았던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팀이 정작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

● **시리아 대통령, 북한과 친선 강조(4/9,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의 핵협력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전문을 보내 양국 간 친선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네덜란드 상의, 5월 대북투자설명회 개최(4/8, 연합)**

- 네덜란드 상공회의소가 내달말 자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대북투자 설명회를 가질 예정
- 네덜란드 상공회의소는 빠르면 오는 9월, 늦어도 올해안에 직접 북한을 방문해 판로를 개척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을 잡고 “현재 북한과 구체적인 방북 일정 및 규모등을 협상중이며, 북한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브라우어 공보관은 설명



* 북한과 네덜란드는 지난 2001년 수교하고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가 네덜란드 주재 대사를 겸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설명회는 수교이후 처음임.

● 유엔, 북한 내 올림픽 성화봉송 불참(4/6, 연합)

- 유엔이 4월 28일 북한에서 이뤄지는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에 불참하기로 함.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北, 총선 언급없이 정부 비난(4/10,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노동신문은 10일 '사기협잡꾼의 폰수없는 망동' 제목의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개혁·개방·3000 구상중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끌어올려 주겠다고 하는 대목에 대해 "그따위 불순한 광고판을 들고 나와 놀아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고 모독"이라고 주장
-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는 등 북남선언과 합의를 짓밟는 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북남관계문제, 민족문제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실용외교의 농락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새 정부의 실용주의에 대해 "미 제국주의가 공식철학으로 삼고 있는 현대부르주아 주관 관념론으로서 '유익한 것이 곧 진리'라는 논리로, 자본주의 제도와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합리화하는 반동적인 사상조류"라고 주장하고 "민족문제에까지 '실용'의 잣대를 들이대려"는 것을 비난

● 北, 대남입장 천명 '총선용' 아니다 라고 강조(4/8, 민족조선;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북한 당국은 최근 대남 강경조치들이 남한의 4.9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남한의 일부 관측을 "생억지"라고 반박하고 이런 말은 "보수세력을 규합하여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 보려는 속심(속셈)"이라고 주장
- 8일 북한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6일 '왜 생억지를 부리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측이 남측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남조선에서...우리측의 원칙적 입장이 '총선용'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며 이는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궤변"이라고 주장



나. 남북교류

● 무연탄 실은 북한 선박 울산항 첫 입항(4/13, 연합)

- 무연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13일 울산항에 처음 입항, 울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신연철)은 북한에서 무연탄 4천t을 실은 북한 국적선 창덕호(2천496t급.선장 강철용)가 4월 13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항 M-7 정박지에 정박했다고 밝힘.
- 북한산 무연탄은 서울 소재 우리나라 기업인 대신자원주이 수입했으며 이번 1차분을 포함해 오는 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항차당 4천t씩 모두 1만2천t이 수입

● 北, 南실무 당국자 방북 잇달아 불허(4/11, 연합)

- 남측 당국자들의 방북을 차단할 것이라고 공언한 북한이 최근 남북 당국간 대화 및 군사 분야와 무관한 실무 당국자의 방북신청을 잇달아 기각,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현장의 조달청 소속 상주 직원을 추방한데 이어 10일 밤 이 직원과 교대할 또 다른 조달청 직원의 방북 신청(11일 방북 예정)에 대해 '부동의' 방침을 우리 측에 통보, 이에 앞서 북측은 이번 주 초 개성공단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키 위해 방문하려는 조달청 사무관의 방북 역시 불허했다고 소식통은 언급

● 남북간 의료·보건교류 잇따라 무산(4/11, 연합)

- 북한이 5월 평양에서 열리는 의학과학토론회에 재미 한인 의사들은 초청한 반면 남측 의사들은 아직 초청의사를 밝히지 않아 올해는 남측 참가가 무산될 전망
- 4월 8일 금강산 온정리를 방문해 닷새동안 북측과 기생충 검사와 기술 전수 방안을 논의하려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도 북측의 방북 초청을 받지 못해 관련 사업이 잠정 연기

●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문제없다고 밝힘(4/10, 연합)

- 현대아산은 10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현장에서 조달청 직원이 퇴거 조치됐지만 금강산 관광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힘. 현대아산측은 "조달청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발주해 현지에 감독관을 파견한 상태며 현대건설과 현대아산이 시공하고 있다"면서 "조달청 직원의 퇴거와 상관없이 현장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 南·北·中, 3차분 대북 설비지원 방안합의(4/10, 연합)

- 남북한과 중국은 10일 베이징(北京)에서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3차 협의를 열어 제3차분 대북 설비·자재 공급방안에 합의,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협의에 따라 한국은 철강재 등 중유



3.5만t 상당의 설비를, 중국 측은 코크스탄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힘.
* 이날 합의한 물량을 포함해 4월 현재까지 북한에 제공된 경제·에너지 지원은 증유로 환산해 한국이 7.1만t, 중국 7.1만t, 미국 10만t, 러시아 5만t 등 총 29.2만t에 달함.

● **北 결핵어린이 돕기 제약사도 동참(4/9, 조선일보)**

- (주)녹십자는 8일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영양제 3000상자(7500만원 상당)를 북한결핵어린이돕기 범국민운동본부(총재 이윤구·상임대표 이광선)에 전달

● **남북 체육교류도 '주춤'(4/8, 연합뉴스)**

-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북한올림픽위원회가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에 나란히 참석했지만 8일 현재 베이징(北京) 올림픽 남북단일팀 및 공동응원단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김정길 KOC위원장은 ANOC 총회기간 박학선 신임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양자 회동을 갖자고 2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해남 고구마 '통일 고구마'로 남북 교류협력(4/7, 해남군)**

- 전남 해남의 명물 '호박 고구마'가 북한에서 통일 고구마로 거듭남. 해남군은 "고구마 재배 교류협력사업으로 오는 10일 북한을 방문, 현지에서 고구마 교류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힘.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6자회담, 내달 중순 이후 재개될 듯(4/11)

- 북한과 미국간 핵 프로그램 신고 협의가 ‘잠정합의’ 수준까지 진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기 교착국면에 빠진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의 개최 조건이 갈수록 무르익고 있다”며 “우리는 당사국들과 밀접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6자회담의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표의 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6자 참가국들은 북한의 신고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자국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는 대략 2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영재 주(駐)러시아 북한대사는 10일 북한은 조만간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뒤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북핵 2단계 이행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향후 2주간 북한과 합의한 여러 요소들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향후 2~3주내에 북핵 2단계를 완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조선신보 “싱가포르선 3단계조치도 논의했을 것”(4/11)

- 북한과 미국은 지난 8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핵 10·3합의의 이행이 완결 다음에 ‘제3단계 조치’도 논의했을 것이며, ‘3단계’에선 “조선(북한)의 핵포기 때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라는 동시행동이 보다 심화되고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1일 주장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이 “미국을 앞질러 싱가포르 합의를 공표한 것은 10·3합의 이행의 완결과 ‘제3단계’의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신문은 “더우기 우려되는 것”으로 “조선에 대한 대결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본과 남한을 들고 “동족대결을 일삼는 남조선의 이



명박 정권의 정책기조는 싱가포르 합의가 초래하는 변화의 흐름과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

- 이어 신문은 “10·3 합의 이행의 완결과 제3단계 이행이라는 6자회담 과정은 이 지역의 긍정적인 사태발전에 보조를 맞추는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의 계선(경계선)을 보다 뚜렷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 6자회담 재개시동…이르면 월말 개최될듯(4/11)

-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8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해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차기 6자회담 일정의 본격적인 조정에 착수했음.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이나 늦어도 5월 중에는 차기 6자회담이 열려 북핵 2단계 이행계획을 일단락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베이징 외교가는 전망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의 개최 조건이 갈수록 무르익고 있다”며 “우리는 당사국들과 밀접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6자회담의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표의 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음.

● 駐러 北대사 “곧 중국에 핵 불능화 신고 제출”(4/11)

-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10일 “평양 당국이 곧 중국 정부에 핵 불능화와 관련한 책무를 이행했음을 신고할 것이고 중국은 차기 6자회담 조건에 대한 조율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이 그들의 책무를 얼마나 충족하느냐 여부”라고 말했음.
- 그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양자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면서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핵 분야에서 시리아와 협력했다는, 미국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들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 RFA, “美, 北비핵화 위해 ‘글렌수정법’ 유보키로”(4/11)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핵실험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글렌수정법이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보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핵 불능화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게 글렌수정법에 저촉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 의회에 유보조항의 입법을 요청했으며, “이달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크전 보충예산안에 포함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힐 “2~3주내 합의이행위한 많은 활동 있을 것”(4/11)

- 힐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에게 비공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싱가포르에서 북한측과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눴고 싱가포르회담이 북핵 2단계를 완료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됐



다”고 밝혔다.

- 힐 차관보는 “북핵 2단계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로 구성된 패키지 협상으로 이것들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향후 2주간(next couple of weeks) 북한과 합의한 여러 요소들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그동안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진척시키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합의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南-北-中, 3차분 대북 설비지원 방안합의(4/10)

-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이번 협의에 따라 한국은 철강재 등 중유 3.5만t 상당의 설비를, 중국측은 코크스탄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물량을 포함해 4월 현재까지 북한에 제공된 경제·에너지 지원은 중유로 환산해 한국이 7.1만t, 중국 7.1만t, 미국 10만t, 러시아 5만t 등 총 29.2만t에 달함.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1~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3자협의 1단계 회의와 지난달 27~2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실무접촉 협의 결과를 토대로 6자 차원의 대북 에너지 관련설비 자재 3차분 지원 방안이 합의됐음.

● 中, 북·미 양자회담 성과 환영(4/10)

-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양자가 9일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에게 회담 결과를 통보한 결과 양측이 핵 신고 관련 문제에 대해 공통인식을 도출해 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중국은 이 성과들이 6자회담의 진일보한 발전을 이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 북·미 합의 승인여부와 美의회-日 변수(4/10)

- 미 의회 내부에서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협력 의혹을 ‘간접시인’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신고하는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
- 다른 현안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일본인 납치문제임. 일본 정부는 현재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를 사실상 연계시켜놓고 있음.
-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은 지난 4일 유명한 외교장관과의 도쿄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물론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할 문제지만 미국측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경



우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이 긴밀히 연 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힐 차관보는 9일 베이징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진 전이 있었다”면서도 “본국으로 돌아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 게 보고하고 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美 “북핵 확실히 진전”...타결여부 확인엔 신중(4/10)

-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 고 문제에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밝힌 것과 달리 미국은 여전히 아직 해결돼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한발 빼며 협상 타결을 기 정사실화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을 마친 뒤 베이징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잇따라 만나 회담결과를 설명한 힐 차 관보는 이날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함께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요소들이 아직 다 정리되지는 못했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 음. 이어 힐 차관보는 이번 협상이 ‘패키지 협상’임을 강조하면서 “모 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역설했음.
- 특히 그는 “아직 우리 앞에 많은 일을 남겨두고 있다. (싱가포르회담 에서) 어떤 중요한 돌파구가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북핵 2단계를 완결짓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최종 타결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내비쳤음.

● 北美 ‘핵신고’ 최종승인 남아(4/9)

- 협상을 벌인 당사국인 북한은 이미 회담 결과에 대해 사실상 승인 결정이 내려졌지만 미국은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관 측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의 회담을 소개하며 “10·3합의 이행 을 완결하는 데서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 그러나 힐 차관보는 싱가포르에서 회동 직후 회견에서 “북측과 좋은 협의를 했고 얼마나 좋은 협의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 과 달리 9일 베이징에서는 본국의 반응을 의식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北美회담 일부 진전...최종합의 못해(4/9)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 일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 보와 회담을 가진 뒤 “힐 차관보가 북한측과 좋은 협의를 했고 상당



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며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초는 마련됐지만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양측이 협의 내용에 대해 기다리고 있는 본국 정부의 승인 문제와 관련, 그는 “양측 본국에서 승인이 될 경우 큰 틀에서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추가로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 양자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며 “최종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본국으로 돌아가 앞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이번 회동을 통해 (핵 신고에 필요한) 플루토늄 문제 등을 비롯해 모든 요소를 북측과 조율하지는 못했다”며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것은 시간과 세부 계획”이라고 말했다.

● 라이스, 북핵협상 “진전이었다면 좋은 일”(4/8)

- 라이스 장관은 “힐 차관보로부터 잠정 보고만 받았고 곧 그와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며 “만일 좀 진전이 있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답변함. 그러나 “북한과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떻고, 남아있는 일이 무엇인지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북미 양측이 북핵 2단계 합의상의 의무를 완수해 한반도 비핵화를 다루는 6자회담 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핵신고-美정치적 보상 견해 일치”(4/9)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 회담을 소개하면서 “10·3합의 이행을 완결하는 데서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밝혔다.
-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방식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6자회담 10·3합의 이행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이번 싱가포르 합의는 조미회담의 효과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며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무사항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美, 6자회담 당사국에 회동결과 설명(4/9)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오전 중국 외교부에서 중국측 수석



대표이자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 회담 결과를 설명

- 우 부부장은 힐 차관보에게 “김 부상을 만났더니 (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해 북한측도 이번 양자회담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
- 힐 차관보도 전날 양자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좋은 회동이였다”고 말해 북미 양측이 6자회담 진전의 걸림돌이던 북핵 신고문제를 잠정 합의했음을 시사

● 북·미회담, 美 신고난제 타결 기대속 신중 반응(4/8)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김 부상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제네바 회동 때보다 더 진전이 있었다”면서 “북측과 좋은 협의를 했으며 얼마나 좋은 협의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북측과의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오늘 나는 얘기에 대해 본국 훈령을 받기로 했다”면서 “일이 잘 되면 (9일) 베이징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포함해 더 많은 것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앞서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는 “핵신고 관련 문제들과 북한 핵시설 불능화 과정, 북핵 6자회담 다음 단계 등이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힐 차관보가 서류가방에 북핵 신고서를 갖고 귀국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 회담에서 최종 해결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 단지 “이 회담은 계속되는 과정으로, 진전을 이루기를 소망한다”고 논평했음.

● 북·미회담, 中 돌파구 마련에 환영(4/8)

-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제네바 회동(3.13) 때보다 더 진전이 있었다”며 “북측과 좋은 협의를 했으며 얼마나 좋은 협의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6자회담 진전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현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대표단이 싱가포르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성과가 있기를 크게 기대한다”면서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추진해 가는 것을 한결같이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대화와 협상, 건설적인 노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지속 추진키로(4/7)

-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



하는 데 지속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 또 “내일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에 러시아가 협력해준 데 대해 우리 국민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제의

-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뒤 북한이 참여하는 철도 연결과 동부 시베리아 프로젝트 등 남북한 및 러시아간 3각 협력사업의 추진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용

● 이스라엘 언론, “北-시리아 핵 연계 정보, 美의회서 공개될 듯”(4/6)

-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신문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사건에 관한 상세 정보를 이달 말 열리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6일 새벽 전투기 여러 대를 시리아에 침투시켜 북동부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을 폭격해 파괴하고도 시리아 영공을 침범한 경위와 공격 목표물이 무엇이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이 공습한 것은 사용하지 않던 일반적인 군사시설이라고 밝혔지만 미국과 영국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공습 목표물이 북한의 인력 및 기술 지원으로 건설되던 핵 시설이라는 이른바 ‘시리아-북한 간 핵 커넥션’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음.
- 하레츠는 미 의회가 시리아와 북한 간의 핵 협력 의혹에 관계된 모든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정보기관들의 예산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 행정부가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했다고 보도
- 하레츠는 이스라엘 군부는 공습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 반대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실과 미 행정부는 시리아가 보복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진 점을 들어 진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하레츠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정보 공개가 이스라엘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 및 이란에 대한 시리아의 긴밀한 관계를 냉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경우 북한의 핵 시설을 해체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

나. 미·북 관계

● WP “미국, 對北 제재조치 완화 준비”(4/11)

- 미국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가진 북-미 양자회담에서 도출된 ‘잠정 합의’에 따라 핵심적인 대북(對北) 경제 제재조치를 완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북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11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 진척을 지연시킨 ▲과거 우라늄 농축 관련 핵 활동 신고 수위 ▲시리아와의 핵 개발 협력 의혹 등 논쟁 거리를 제껴두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
- 양자는 이번 싱가포르 회담과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 회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정확히 시인하는 대신 이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미국은 적성국교역법에 근거를 둔 무역 제재와 금융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

● VOA “美국무부, 국내 탈북자 첫 공식 초청”(4/11)

- 미 국무부가 ‘해외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탈북자들을 초청, 워싱턴 등을 순회하며 미 국무부 및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1일 전했다.
- 이 방송은 탈북여성인권연대 강수진 대표를 비롯한 탈북자 4명이 국무부 산하 교육문화국이 운영하는 ‘해외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청받았으며,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공식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
- 간담회에 참석했던 서병선 탈북자복송반대 뉴욕지부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이 미 국무부 관계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탈북난민들을 위한 수용소를 중국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 美 리처드슨 주지사 “수석고문 남궁 박사 北에 파견”(4/10)

-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수석 고문인 K.A 남궁 박사를 9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남궁 박사가 늦어도 금주 말에는 평양에 도착할 것이며 수 명의 미국 내 아시아 정책 전문가들이 그와 동행한다고 설명했다.
- 리처드슨 주지사는 “미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핵시설 불능화에 진전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만큼 남궁 박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남궁 박사가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북한 외무성의 초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라이스 “北인권,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4/10)

- 미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라이스 장관은 의원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계속 제기해왔고, 제기하려



고 노력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취약한 인권실태를 지적

- 이어 라이스 장관은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가 지금 이(북한인권) 문제를 (과거보다) 더 많이 거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였음.

다. 중·북 관계

● ‘꽃파는 처녀’ 中 12개 도시서 40회 공연(4/11)

- 북한의 대표적 혁명가극인 ‘꽃파는 처녀’ 중국 순회공연을 주관하고 있는 베이징 화창송디(華唱兄弟)광고유한공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꽃파는 처녀’는 오는 4월 15일부터 베이징을 시작으로 톈진(天津), 선전(深천<土+川>), 우한(武漢), 둥완(東莞), 상하이, 닝보(寧波), 항저우(杭州), 우시(無錫), 난징(南京), 지난(濟南), 칭다오(靑島) 등 12개 도시를 돌며 40회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순회공연 일정에 동북지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공연단은 베이징에서 출발, 톈진과 남방 경제특구 지역인 선전, 둥완을 경유해 우한과 상하이, 그 주변도시인 닝보, 항저우, 우시에서 공연을 한 뒤 북상해 난징과 지난을 거쳐 칭다오에서 2개월에 걸친 중국 순회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

● 中, 1~2월 옥수수·쌀 대북수출 대폭 증가(4/11)

- 중국 최대의 식품무역정보 웹사이트인 중국식품상무망(中國食品商務網)이 최근 공개한 3월 식량시장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의 옥수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7.36% 감소했지만 대북수출은 무려 1천2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고서가 별도의 통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1~2월 대북 옥수수 수출량은 총 3만100t이었음. 북한은 2월에만 2만7천600t의 중국산 옥수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웹사이트 관계자는 “보고서는 정부에서 공개한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

라. 일·북 관계

● 日, 대북 경제제재 6개월 연장 결정(4/11)

- 일본 정부는 11일 각의에서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음. 제재조치는 북한의 화객선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의 모든 물품 수입금지, 24개 사치품 수출금지가 핵심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한



뒤 반년마다 연장해왔으며 이번이 3번째임.

-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문제에서 구체적 진전이 없고 핵 문제에서도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의거한 ‘완전하고 정확한 핵계획 신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화’와 함께 ‘압력’을 계속 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를 연장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은 보도

● **고이즈미, 후쿠다 총리에 방북 촉구(4/11)**

- 고이즈미 전 총리는 10일 저녁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부총재, 민주당의 이와쿠니 데쓰도(岩國哲人) 전 부대표 등 양당 의원 6명과 회동한 자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 관계를 풀기 위해 총리의 방북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
- 재임시절 두 차례나 북한을 전격 방문, 납북자 및 가족의 귀국을 성사시켰던 고이즈미 총리는 대북 관계에 대해 “국교정상화의 실현은 총리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본인은 앞으로 북한에 갈 계획이 없고 가는 것은 총리다”라고 말했다.

마. 기타

● **시리아 대통령, 북한과 친선 강조(4/8)**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7일 고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 기념 전문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 훌륭한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상호) 이익에 맞게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김 위원장의 66회 생일(2.16) 축전을 전했으며, 김 위원장은 지난달 시리아 혁명일(3.8)을 기념한 축전을 보내 “두 나라 사이 친선협조 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네덜란드 상의, 5월 대북투자설명회 개최(4/7)**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의 카스 브라우어 공보관은 8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네덜란드 기업들은 북한의 정치적 긴장상황때문에 대북 사업에 관심이 없었으나 “최근 북한의 핵문제가 진전되고 정치적 긴장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북한 사업 설명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
- 그는 북한이 사업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북한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요구들이 있고 일부 네덜란드 기업들은 북한의 기업가들을 만나 직접 사실을 알아보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 북한과 네덜란드는 지난 2001년 수교하고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가 네덜란드 주재 대사를 겸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설명회는 수교이후 처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李대통령 “한·미FTA 비준, 양국동맹에 중요”(4/11)**

-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 동맹관계와 북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 방문에 언급, “이번 방미가 전통적 (한미)동맹관계를 확인하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공조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에 파월 전 장관도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정상간 신뢰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음.
- 이어 이 대통령과 파월 전 장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 발효가 양국 동맹강화와 관계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계속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 **美무역대표, 한·미FTA 비준안 제출 ‘재고’(4/11)**

- 슈워브 대표는 기자들에게 미·콜롬비아 FTA비준동의안의 처리를 거부한 하원 표결이 “34년간에 걸친 무역 법률과 관행을 파괴했다”면서 이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 및 파나마와의 FTA합의안 의회 제출을 ‘재고(think twice)’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
- 슈워브 대표는 또 이날 성명을 통해 하원의 미·콜롬비아 FTA비준안 처리 거부를 “부분별하고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완결”은 이들 국가의 시장을 열고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 미 하원의 미·콜롬비아 FTA비준안 처리 거부로 한국 및 파나마와의 FTA비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 **美, 한국경찰 아프간 파견 요청(4/11)**

- 미국은 아프간 치안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질이 뛰어난 한국 경찰에 아프간 경찰의 교육훈련을 맡기길 희망한다며 한국 경찰의 아프간 파견도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 워싱턴의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0일 “미국 정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해 한국 정부에 대규모로 아프간 재건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해 와 양국 정부간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캐슬린 스티븐스 차기 주한미대사 지명자는 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내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아프간 지원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강



력히 시사했었음. 스티븐스 지명자는 “우리(미국)가 아프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주 이 대통령의 방미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 스티븐스 “아프간 파병문제 한국과 협의”(4/10)

- 스티븐스 지명자는 이날 오후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병력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프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현재 많은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만큼 내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 스티븐스 지명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미국이 최근 15년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통상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이 의회의 인준을 받게 되면 FTA의 비준동의와 동시에 환경과 근로기준 문제를 포함해 협정의 조항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무역대표부(USTR)와 최우선 협력하겠다고 말했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을 완전 재개방해야 하고,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나는 안전하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 스티븐스 지명자는 북핵 문제에 언급,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내고 2005년 6개 당사국이 합의한 공동성명(9.19 합의)의 원칙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이처럼 긴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한·미 SPI회의 개최...동맹현안 조율(4/8)

- 제1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렸음.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전제국 국방정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미측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세드니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한미동맹 관련 의제를 다루고 추후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이번 SPI가 보다 잘 진행되도록 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음.



나. 한·중 관계

● MB 실용외교 시동...4강 입장-중국(4/11)

- 중국 정부는 내달 말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양국간 관계 격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합의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한도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올해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비롯해 11월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12월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게 됨에 따라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은 지난달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양국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단계 전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 2월 “중국은 한국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한·중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특히 중국은 이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친기업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올해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본격 추진을 비롯해 양국간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크게 희망
-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또 6자회담의 틀 안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南-北-中, 에너지 실무회의 착수(4/10)

-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 실무협의 회의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는 했지만 북핵 신고 문제가 고비를 넘긴 상태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남북 관계의 화해 가능성 등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음.
- 우리측 대표인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북측 대표인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국장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었고, 황 단장과 현 국장은 중국 측 대표인 천나이칭(陳乃淸) 중국 외교부 한반도 담당대사와도 함께 사진을 찍고 각각 악수를 나눴음.
-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1~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3자협의 1단계 회의와 지난달 27~2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실무접촉 협의결과를 토대로 6자 차원의 대북 에너지 관련설비 자재 3차분 지원 방안을 논의

● 中, 71~86년 5차례 안중근 유해발굴 시도(4/7)

- 중국이 뤼순(旅順)감옥 복원에 발맞춰 지난 1971년부터 86년까지 5



차례에 걸쳐 감옥 공동묘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 묘지를 찾아보려 시도

- 연합뉴스가 7일 입수한 중국 반도신보(半道晨報) 2005년 9월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뤼순감옥을 개방기로 결정한 1971년부터 1986년까지 역사학자들을 동원해 묘지를 발굴하면서 안 의사의 정확한 무덤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음.
- 특히 1986년 7월에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발굴조사단 까지 가서, 중국 정부의 협조 아래 발굴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안 의사를 묘지를 찾아내는 데는 끝내 실패하고 말았음.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당시 발굴작업을 통해 높이가 1m도 되지 않는 술통 모양의 목관에 담겨 매장된 유해를 다량 발굴하는 데는 성공했음.
- 현재 우리 정부 발굴조사단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유해매장 추정지는 이들 장소와는 다른 제3의 지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당시 발굴상황을 ‘뤼순감옥유적지연구(旅順監獄舊地研究)’라는 책으로 묶어 발간

다. 한·일 관계

● **李대통령 “한·일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해야”(4/10)**

-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일 지사회의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요즘 (한·일간) 민간협력 관계가 급속도로 잘되고 어느 때보다 관계가 좋아졌다”고 평가한 뒤 “효과적인 한·일관계의 협력이 있었으면..” 이라고 말했음.
- 오는 15일부터 미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일본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 **“정부, 日외무성 ‘독도주장’에 항의 전달”(4/8)**

- 정부 당국자는 8일 일본 외무성이 지난 2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내용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 “문제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독도 영유권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음.
- 정부는 ‘독도 문제’가 지닌 폭발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와 독도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 미·중 관계

● 中·美, 군사핫라인으로 첫 통화(4/11)

-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핫라인을 통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
- 량 부장은 “양국 간 군사핫라인의 설치는 양국간의 전략 및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핫라인의 개통은 협력과 상호이해 및 양국 관계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게이츠 장관은 지난달 국방부장에 임명된 량 부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이날 핫라인의 개통은 양측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사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과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량 부장은 대만문제와 관련,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안(兩岸) 관계 및 중미 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및 대만과의 군사 협력관계를 중단할 것”을 촉구

마. 미·일 관계

● 美日, 주일미군 탈영시 관련정보 공유 합의(4/11)

- 주일미군 병사가 탈영했을 경우 미군 당국이 즉각 일본 경찰에 체포를 요청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기로 미일 양국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이 11일 발표하였음. 양국은 조만간 미일 합동위원회를 열고 정식 합의할 예정
- 최근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시에서 발생한 택시운전사 피살사건의 용의자가 탈영한 미해군 병사였으나 일본측에 탈영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결국 범행으로 이어진데 따른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요코스카와 오키나와(沖縄) 등 지자체에서는 미 병사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탈영병과 영외 거주 미군에 대한 정보를 일본측에 제공토록 하는 등의 체제정비를 조속히 해줄 것을 바라고 있음.

바. 미·러 관계

● 美-러 정상, “한반도 비핵화 전폭 지지”(4/6)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6일 러시아 흑해 휴양지인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동유럽 미사일 방어(MD)계획을 포함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인 ‘미·러 공동 전략틀 선언’을 채택하였고, 양국 정상은 공동 선언에 북한의 핵 야욕을 종식하기 위한 6자 회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면서 한반도 문



제를 양국의 현안에 포함하였음.

- 또 공동 선언에서 양국은 더 이상 서로를 ‘적(敵)’ 또는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략 핵무기를 최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음. 마찰을 빚고 있는 MD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확대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음.
-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반드시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테러 분쇄를 위해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음. 이 밖에 미국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지지하기로 했고, 에너지 문제는 새로 대화 창구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부시-푸틴 정상회담서 MD 합의 실패(4/6)

-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흑해 휴양지인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MD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
-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MD가 양국 간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다”면서 “나는 그 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음.
- 부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그동안 MD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러시아 측 대안을 받아줄 것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는 양국이 파트너로서 MD 체제를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
-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도울 것”이라면서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무역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종합무역법의 잭슨 바닉 조항의 철폐에 동의한다”고 말했음.
-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이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재확인. 또 양국 정상은 이날 내년 12월 5일 끝나는 전력무기 감축 협정(START)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전략무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음.

사. 중·일 관계

● 中, 후진타오 방일 준비 본격화(4/10)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이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의 초청으로 오는 17~20일 일본을 방문한다”며 “중·일 양국은 양 부장의 방일 기간에 후진타오 주석의 방일 문제와 양국의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말했음.
- 일본 교도통신은 1일 후진타오 주석이 내달 6일부터 6일 일정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 국왕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보도

아. 기타

● 英紙 “이란, 북한 방식으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의혹”(4/11)

- 이란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비밀 장소가 새 위성사진들에 잡혔으며, 이 사진들은 이란이 북한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11일 보도
- 이들 위성사진은 위성 발사용 로켓이라며 이란이 ‘카보슈가르-1’호를 지난 2월초 발사한 뒤 4일후 촬영된 것으로, 테헤란 남동부 230 km 지점의 로켓 발사 장소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꾀하고 있는 곳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임.
-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JIR)’가 전직 이라크 무기 사찰단원을 통해 위성 사진들을 분석해 드러냈다는 게 신문의 지적임. 위성사진 상으로 카보슈가르-1로켓은 민간 우주 프로젝트라기 보다는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비밀 프로그램과 일치한다는 견해를 드러냈음.

● MB 실용외교 시동...유럽 시각(4/11)

- ◇영국 = 영국의 여론주도층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친기업 정책, 산업은행 민영화, 물가 억제 등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계속 보도하고 있고, 지난달 2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 공약을 다시 한번 조명했음. 우파 성향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거부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다”고 전하면서 “대체로 부끄러울 정도로 침묵을 지킨 전임 대통령과 달리 과감한 입장을 취하는 이 대통령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프랑스 = 프랑스 언론 매체들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이 대통령이 세금 인하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고용시장의 유연화에 기반한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고, 경제 일간지 레제코는 최근 전세계의 자본을 유인해 2012년까지 세계 10위권 내의 투자환경 우수국가로 거듭 내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자유주의를 거듭 소개
- ◇독일 = “경제 맑음, 대북(對北) 관계 흐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경제 정책은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것으로 독일 언론은 예상하였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이 대통령이 세금인하, 규제완화,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음. 또 새 정부는 시장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와 관료주의적 폐해들을 철폐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음.



● 호주 농림장관 “한-호 FTA 조기체결 희망”(4/10)

- 토니 버크(Tony Burke.39) 호주 농수산입업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호주-뉴질랜드상공회의소 회원들과의 조찬 모임에서 연설을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호주산 쇠고기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된다”며 “한-호 FTA도 조기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
- 그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문제가 해결되고 FTA가 발효되면 관세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으로 많이 수출될 것”이라며 “오는 4월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이 진행중인 한-호 FTA의 실효성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와 활발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2차 북핵위기 후 핵신고 합의 일지 - 연합뉴스, 4/9일자

◇2002년

- ▲ 10.3 = 제임스 켈리 특사 등 미국 대표단 8명 북한 방문
- ▲ 10.17 = 미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 발표
- ▲ 11.15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12월분부터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
- ▲ 12.12 = 북, 핵동결 해제 선언
- ▲ 12.21 = 북, 핵시설 봉인과 감시 카메라 제거 등 핵동결 해제 조치 개시
- ▲ 12.31 = 부시 미 대통령, 북핵 문제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 천명

◇2003년

- ▲ 1.10 = 북, 정부성명 통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 ▲ 2.12 =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 ▲ 4.23~25 = 북·미·중, 베이징에서 3자회담 개최
- ▲ 8.27~29 = 제1차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 ▲ 11.21 = KEDO, 대북 경수로사업 12월 1일부터 1년 동안 중단 결정
- ▲ 12.9 = 북, ‘1단계 동시일괄타결’ 제의

◇2004년

- ▲ 2.25~28 = 제2차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 ▲ 4.7~8 = 한·미·일 3자협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재확인
- ▲ 6.23~26 = 제3차 6자회담(베이징)
- ▲ 7.24 = 북 “美 제안 리비아식 선(先) 핵포기 논의가치 없어”



◇2005년

- ▲ 2.10 = 북, 핵무기 보유 선언
- ▲ 5.11 =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 ▲ 9.13~19 = 2단계 제4차 6자회담, '北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6개항 공동성명 채택
- ▲ 11.9~11 = 제5차 1단계 6자회담 개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공동성명 이행 의장성명 채택

◇2006년

- ▲ 1.18 =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 ▲ 6.1 = 북 외무성,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초청. 美 거부
- ▲ 7.5 = 북, 미사일 발사
- ▲ 7.16 =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북측은 즉각 거부
- ▲ 9.9 =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 ▲ 10.9 = 북, 핵실험 실시
- ▲ 10.15 = 유엔 안보리 현장 7조 의거 대북 제재결의
- ▲ 10.19 = 탕자쉬안 중국 특사 김정일 면담, 후진타오 메시지 전달
- ▲ 12.18 =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서 개막
- ▲ 12.20 = 미, 북에 '핵폐기-상응조치' 수정안 제시..북, 방코텔타아시아(BDA) 선결원칙 고수
- ▲ 12.22 = 제5차 2단계 회의 차기 일정 못 잡고 종료

◇2007년

- ▲ 1.16~18 =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힐 차관보 베를린 양자회담
- ▲ 2.8 =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
- ▲ 2.13 = 6자회담 '2.13 합의문' 채택
- ▲ 3.13~14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방북
- ▲ 3.19 = 北, BDA 자금 동결 문제삼아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불참
- ▲ 6.21~21 = 힐 차관보 방북
- ▲ 6.25 = 北 외무성, BDA 동결자금 북한계좌로 송금 확인
- ▲ 6.26~30 = IAEA 실무단 방북, 2.13 합의에 따른 북핵 시설 폐쇄. 검증 문제 등 협의
- ▲ 7.15 = 北 외무성, 중유 5만t 도착 확인하고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발표
- ▲ 9.1~2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 핵시설 연내 불능화 · 전면 신고 합의 (제네바)
- ▲ 9.11~15 = 미·중·러 '북핵 불능화기술팀' 방북



- ▲ 9.18 = 외무성, ‘北-시리아 핵협력’ 의혹 부인
- ▲ 10.3 = ‘9.19 공동성명 이행 제2단계 조치’ 합의(베이징)
- ▲ 11.1~5 = 미 북핵 불능화팀 방북, 불능화 조치 착수
- ▲ 11.19~20 = 북·미 금융실무 회의 (뉴욕)
- ▲ 11.27~29 = 6자회담 당국자 등 ‘북핵 불능화 실사단’ 북한 영변 방문
- ▲ 12.3~5 = 힐 차관보 방북

◇2008년

- ▲ 1.4 = 北 외무성 “美에 수입알루미늄관 이용 군사시설 참관시켜. 핵 신고서 작년 11월 제공”
- ▲ 2.19 = 힐 차관보-김계관 부상 베이징서 양자회담 북핵신고 논의
- ▲ 3.13~14 = 힐 차관보-김계관 부상 양자회담 북핵신고 논의(제네바)
힐 ‘동시 전면신고’ 요구..“신고 형식엔 유연히 대처”
- ▲ 4.8 = 힐 차관보-김계관 부상 양자회담 북핵신고 논의문제 잠정 합의 (싱가포르)

* 인터넷 자료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4/09/0504000000AKR20080409048700014.HTML>>

☉ 동북아연구실 제공